



連載 [ 1 ]

## 잃어버린 古代都市

### I. 都市란 무엇인가

古代都市란 말할 것도 없이 현대에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는 都市를 말한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폐허가 되어 있거나, 또는 이스탄불·바그다드와 같은 과거의 都市 위에 새로운 都市가 몇겹으로 쌓여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古代都市에 대한 규모와 역사는 聖書나 호메로스의 전설 중, 혹은 이집트의 象形文學이나 바벨론의 楔形文學에 의해 찾아볼 수가 있다. 거기에서는 여러가지 도시의 정치형태와 경제조직을 읽어볼 수가 있으며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식으로서 알 수도 있다. 이 작업은 근래들어 考古學과 歷史學의 진보에 따라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따라서 都市란 단순히 數字로 표시될만한 그러한 것만이 아니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都市生活을 생각해 보더라도 도면이나 그래프에 하나

하나 표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에는 편리라든가 쾌적성 등이 물론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생활의 충실감이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都市生活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초고층 빌딩 위에서 한눈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이나 동경·뉴욕을 볼 때, 그 속에 뻗어 있는 고속도로의 아름다운 曲線의 眺望, 그리고 밤이 되면 지상의 성과와도 같은 네온의 바다 속을 천천히 빛의 航路를 그리며 달리는 자동차 불빛의 帶狀線 등에서,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와 자신과의 일체감을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都市는 단순히 우리들의 생활도구나 장소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都市 그 자체는 하나의 육체와 신경조직, 또는 뚜렷한 성격을 가진 살아 있는 生物과 같다.

古代都市 역시 살아 있었던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거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古代都市도 육체·혈액·성격을 가지고 살아 왔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육체란 數字와 文字로서는 감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한 조각의 기왓장이나 벽돌, 부러진 돌기둥 등이 살아 있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物件 그 자체는 數字를 초월한 어떤 확실한 손의 촉각적 자국으로서 그 분위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都市란 이미 말한 것처럼 인간의 단순한 공상도 아니고 또한 도구도 아니며 인간이 그들의 생활과 꿈을 남긴 자국의 세계, 바로 그 자체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뜻으로서 都市란 都市 이상의 것이며 또한 단순한 歷史 이상의 것으로서 그것은 인류의 예술, 그 자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 \* >